

66명 70만원씩 4천620만원 전달

2007년도 가산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가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심재호)은 4월14일 오전10시 가산농협 2층 강당에서 2007년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은 2007학년도 대학에 입학한 조합원 자녀 66명을 대상으로 각 7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이 자리에는 가산농협 이사들이 참석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을 격려했다. 심재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체결로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은 물론, 판매처분조차 어려운 상황속에서 그대들 지식들의 공부는 시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공경과 효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망의 꿈을 안

고 대학에 들어갔으니 진리탐구에 전념하여 학생, 박사, 정치가 등 유명인사로 변신하여 다시 고향을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산농협은 지난 2002년부터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로 그동안 모두 429명에게 2993천4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 명단이다.

- ▶이은희 포천중문의과대학교 ▶ 심준선 신흥대학 ▶이세웅 동아방송예술대학 ▶이상우 두원공과대학 ▶양성희 세종대학교 ▶최소예 수원대학교 ▶이소희 광운대학교 ▶남진희 나주대학 ▶남기남 나주대학 ▶김정은 강릉영동대학 ▶유민지 경북대학 ▶함용훈 대덕대학 ▶이내래 전주교육대학교 ▶박충연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이효승 안양과학대학 ▶김준태 세명대학교 ▶조성근 광운대학교 ▶김소영 신흥대학 ▶이재혁 충주대학교

- ▶송세롬 경북대학 ▶김재현 동우대학 ▶신정은 배화여자대학 ▶이다희 우석대학 ▶김중웅 경희대학 ▶이범용 고려대학 ▶김유진 칼빈대학 ▶조성태 용인대학 ▶이준희 대덕대학 ▶유지현 인덕대학 ▶이상희 신흥대학 ▶박대오 한국폴리텍IV중주대학 ▶조인국 서일대학 ▶이정화 한림대학 ▶이명희 대신대학 ▶성우진 신흥대학 ▶조성민 강원대학 ▶이혜미 카톨릭대학 ▶황수인 경북대학 ▶김효승 배화여자대학 ▶최종일 경민대학 ▶이재창 백석예술대학 ▶정정화 인천대학 ▶이진혁 서울예술대학 ▶강현구 경북대학 ▶김상실 경북대학 ▶이미림 국제대학 ▶이정범 경북대학 ▶한주영 공주대학 ▶박누리 경기대학 ▶양미영 배화여자대학 ▶조정연 한림대학 ▶김기택 경희대학 ▶고영국 공주대학 ▶이승우 경북대학 ▶문지영 경희대학 ▶손미희 명지전문대학 ▶유민진 세종대학 ▶최미혜 용지세무대학 ▶이상아 우송대학 ▶박용일 강원대학 ▶권예은 백석예술대학 ▶김재민 그리스도대학 ▶이주희 동양대학 ▶이소연 동우대학 ▶김진섭 서남대학 ▶김선홍 한성디지털대학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자유기고

희망의 꽃



사랑하는 나의 친구 원덕, 너와 이별연습이라니 숨쉬기조차 힘이 든다. 잠시도 할 수 없이 열심히 군단에서 생활하던 지금의 현실, 참된 삶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댓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든 없든 우리는 수많은 작은 길을 한가닥씩 택해 간다. 이념이라든가 오로지 그중의 한길을 걷는 중에도 이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길인 것일... 인간은 만능이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그 말이 지금 역으로 된 말이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엄청난 너의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는 무와 망각의 세계에 헤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영위해 간다. 너와 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적당히 음하면서 살진 않았기에 마음에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지, 이따금씩 슬픈 떠나 기쁨이 병행 할 때면 서로를 의지하여 주고 받고 서로 충고도 했고 토닥거리고 삶에 대한 의식구조가 거의 비슷해서 화해 또한 남보다 짧게 풀

어지고 그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나... 주어진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어두운 생활의식에 사로잡힐 뿐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하니 집이 천근 만근이다.

너무 담담한 너를 볼 때 견뎌내면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동료는 그저 다투리 일뿐 손톱만큼의 고통도 나눌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나를 돌리기가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네 안에 숨어 함께 살고 있는 암이란 존재와 함께 놀자고 죽음을 리는 것을 할 수 있는 독한 여자가 되어보렴. 그러면서 너의 몸이 깊이 자생하는 암이란 존재를 대접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좋은 방법을 찾아 퇴출도 시키고 작은 몸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해서 너와 나 힘있게 남은 여생 노력! 인내!로 장식해보겠다는 신념 버리지 말고 세상사를 살아가자.

원덕아! 모든 사람이 제 갈 길을 향한다고 해도 아쉽지만 한 시간은 너는 지금이 시작이란 걸 항상 잊지 말고 시간에 얽매어 살아가는 이 습성은 현재에서 원덕과 헤아가 버린 과거는 가버린 대로 물어버리고 생애를 송고하게 할 수 있고 이 세상 떠날 때 시간이라는 모래 발 위에 발자국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너와 나 착실하게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다짐하던 어제를 생각하며 우정은 참되고 이름 담게... 서로의 우정 고마움 잊지 말자. 빠른 너의 쾌유를 빌며, 포천 꽃꽂이.

Essay

벚꽃과 함께 한 모임



윤순옥

포천의학연구소

하고싶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 모든 것을 짓고 넘어가자면 내 능력 안의 예지는 한참 미안하다. 귀찮고 힘겨워 외면하자니 아직은 나약처럼 떨어져 흠과 함께 씩씩 기쁨이 되기엔 무언가 억울함이 솟는다.

얼마전 어느 모임에서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는 생활영어 책을 한 권 권 주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루에 한 문장씩 외워보리라 마음을 기대에 부풀어 즐거웠다. 막상 책 펴고 보면 도전해보니 금방 외우고 생각하면 까마득하다. 아니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머리가 돌이 되는구나. 기막힘에 앞서 서글퍼 지기까지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마침 옛날에 모임을 가졌던 인근 시군 형님들이 남양주에서 모임을 갖자기에 조금 젊은 내가 내차로 모시고 가평을 지나 북한강 도로변

으로 달렸다. 봄날이 실심한 부리는 풀 앞에서 내뿜는 바람이 내서야 바타처럼 확 트이고 차도 역 벗꽃나무에 꽃터널이 이어졌다. 일제히 터트리니 환호성은 언제 그 많은 세월을 보낸 할머니들이 아니다.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청춘소년처럼 고조된 소프라노로 우리 자신들을 놀라게 한다. 한참을 달려도 베일을 신부보다 아름답고 세상의 값진 보석보다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고마운 봄의 보석! 화려한 꽃잎들이 일새하나 하지 않고 그 많은 나뭇가지를 꽃으로 휘감고 있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오. 한참 가던 길을 다시 유턴해 또 한번 천천히 지나왔다. 내 안에 꽃잎들을 가득 채우면서...

재빨리 감싸안고 불고 있는데 꽃잎은 떨어지지 않고 바람을 빌고 꽃덩어리가 울음을 하니 더한층 매료되고 가평을 지나 북한강 도로변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순리를 배신하지 말고 지키고 아낄 것을 만민에게 부탁드리고 싶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남양주 형님이 손수 만든 두부와 김치전, 감자떡, 달래장에 노랑게 지진 두부전을 곁들여 먹으니 천하일미가 따로 없다.

고소한 두부의 뒷맛이 혀끝을 감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시장기를 잠재우니 더 부러울 게 없다. 이만한 여유로 오늘 하루 보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 삶에 남아 있는 날들을 여러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주위를 살피고 보듬어 같이 가자고 꽃잎 속엔 녹아 내린 마음들을 이야기하며 오늘의 모임은 끝났다.

자유기고

도평리 발전 希望



김형석

주무원

지난 4월12일 이동면 도평리에 소재한 도평교회에서 도평리 4개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고 호미와 가방 등 선물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나누어 드렸다.

도평리는 백운산과 광덕산, 국망봉 등 유명한 산과 강이 잘 어우러져 산세가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여름에는 산과 강을 찾아 많은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으며 가을에는 등산객들, 그리고 겨울에는 동장군 축제 등으로 각종 크고 작은 축제들을 포천시의 지원을 받아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며 년중 자연과 더불어 불거리, 먹거리 등을 제공하여 가족과 단체 등의 나들이에 좋은 코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을이다.

최근에는 도평권역 농촌마을 시범지역으로 확정되어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으며 각종 여건 수렴과 마을 공청회를 통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도평교회에서도 겨우내 움츠렸던 노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여러 가지 농사준비로 지치고 고단한 하루를 잠시 쉬어가는 뜻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자못된 담임목사는 앞으로 종종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여러 성도들이 불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자유기고

준비 없는 이별



장선옥

주무원

큰딸이 타살용 달력을 들고 와 1년의 경조사를 물어 왔다. 딸과 함께 1년의 경조사를 체크해 나가는데 큰딸의 생일(인력)과 친정아버지의 생일(음력)이 같은 날인 것이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지난해 예고 없이 나의 결혼을 떠나셨다.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 앞에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건강하시지는 않으셨으나 특별히 병을 앓고 계신 것도 아니었던 터라 이렇게 갑자기 세상상의 이별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전화를 하셔서 아이들이 보고 싶는데 보내줄 수 없겠냐고 물으셨고 나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명스럽게 아이들이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돌아가시기 한 시간 전에도 아버지께서는 전화로 아이

들이 보고 싶는데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 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쁘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데도...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라 될 즈음 예 삼할 듯이 울었던 것이다.

1시간 여만에 친정 집에 당도해서 아버지가 주무신다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께서는 대답 없이 관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장례식 내내 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렇게 보고 싶어하시는 아이들을 보내 주지 않은 죄책감 또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꼭 나를 원망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기라 등등

의 이유로 나는 아버지를 쳐다 보지 못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 유골을 묻고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쳐다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삼할 듯이 울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장례식 내내 나를 노려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마지막에는 나에게 웃음을 보이셨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아버지의 마음에 한을 남기지 않으시려고 그리신 것 같다. 이런 준비 없는 이별은 누구에게도 이별로 나와 헤어져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딸이와 생일이 같은 것을 보니 아버지는 나의 기쁨속에 영원히 남아서 나를 지켜주시길 거라 믿는다.

시

夫婦



용경자

주무원

결혼과 동시에 공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당신의 시가 되고 당신은 내 드라마의 멋진 주연 배우가 되리라 마음 먹고 무대에 올랐다.

예쁜 얼굴도 아니요 멋진 말솜씨나 여자의 기교도 아니요 순진한 진실 어린 마음만으로 당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고 싶다.

부부란 정반대의 성격이 만나서 맞추다 맞추다가 서로 마음이 딱 맞으면 죽는 거라나...

나도 이전 자존심 때문에 명분 없이 싸웠던 지난날을 연습이라 말하고 사랑의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

15년 살았는데 포천은 나의 전전지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싸웠던 지난날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부족함을 채워 주려 하기보다 서로 탓하기만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먼 훗날 이곳에서 지난날 속삭이던 사랑의 노래를 추억해야 하지 않을까?

TV에서보던 넉넉지 못한 형편은 사랑을 꽃피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세상살이의 배경이 되는데...

또 슬데없는 자존심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 아직 연극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라.

자유기고

아들의 축구경기를 보고



김은숙

주무원

전남 강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중학교 춘계축구연맹대회를 보러 예쁜 딸과 함께 우리 세 식구는 강진으로 향했다. 늘 가보는 축구대회지만 올해는 모처럼 남다른 가슴 떨림의 기대를 안고 아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그곳으로 출발했다.

145개 학교가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선보이는 축구대회다. 많은 중학교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축구장에 도착해보니 각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목청을 돋우며 응원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응원했다. 중2학년인 우리 아들은 3학년 시합에 들어가 열심히 미드필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고 열심히 뛰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

자니 모든 아들의 부모 마음도 나와 같겠지만 나는 가슴 저 밑에서 또 다른 울컥거림의 뿌듯한 그 무엇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급성장으로 인한 허리의 통증으로 약 6개월 동안 동계훈련도 접고 재활치료를 받아온 아들, 저 넓은 구장의 그라운드에서 무척이나 뛰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참으며 고된 재활훈련을 받고 이겨낸 결과 오늘은 저렇게 넓은 잔디구장에서 뛰고 있다.

안아주고 싶고 어루만져 주고 싶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코끝이 할텔하며 나의 시야를 흐리고 있었다. "부디 열심히 몸 다치지 않게 뛰어다오" 마음으로 행운을 빌며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3:0으로 아들학교의 승리로 16강 진출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아들을 만나 아들의 불을 쓰다듬으며 "허리는 괜찮냐?"라고 묻자 "응"하고 짧게 대답하는 아들, 내삼백이 딸은 오빠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오빠" 부르며 꼬옥 부둥켜 안는다. 남매가 모처럼 만나니 그 기쁨은 두 배이겠다. 남은 시합도 열심히 싸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아들에게 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고 강진의 도로변에 활짝 핀 벚꽃의 인사를 받으며 포천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웠다.

장승호의 야구 이야기 ⑥

포천시야구협회장배 야구대회

우리 포천의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가 각 팀 대표들의 희생을 거쳐 오는 5월에 영북중학교 운동장에서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에도 제1회 경기도지사기야구대회와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야구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포천의 이름을 알리고 생활체육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입을 모았습니니다. 제3회 포천시야구협회장배야구대회는 경기도대회의 대표팀 선수 선발의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심판의 구성과 경기의 진행을 포천시야구협회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운동장하나 제대로 없는

포천이지만 영북중학교의 도움과 교류를 통하여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언제나 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3회 포천시야구협회장배야구대회는 토너먼트경기방식으로 2시간의 시간제한과 대한야구협회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적용하여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함으로서 진정한 대표팀의 구성원을 선발하고 즐거운 야구인의 모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고 있는 포천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도 고마운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포천의 체육 발전은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체육인이자 시민인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성내는 소인배가 되지 말고 운동장 만큼이나 넓게 생각하고 체육을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대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발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며 많은 시민들이 건강함으로써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모든 체육종목의 장려는 필수이고 여러 방법으로 종목의 협회와 체육회는 지금까지 잘해 왔듯이 유기적으로 서로 도와가며 상생의 길을 만들어야 가야 할 것입니다. 문의: 011-242-0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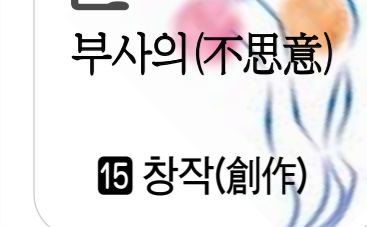


장승호

포천야구협회장

월빙 부사의(不思議) 창작(創作)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발상의 전환이란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는 것이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방향(方向)'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은 '생각'을 바꾸자는 것이고 주제(主題)를 바꾸자는 것이고 키워드(key word)를 바꾸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물'에 얽매이지 말고 '물 밖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視點)에서 새로운 그 무엇'을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발상의 전환이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이야기는 '생각을 달리해 새로운 것을 찾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찾아 무엇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작(創作)이다. 창작이라고 하면 흔히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듯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창작이란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창작이다. 남이 못하는 것만은 생각지 말고 남이 안 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 그 순간 아이

이 거 떠오르고 새로운 생각이 솟구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남이 못하는 것'과 '남이 안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으로 옮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작은 고뇌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뇌(苦惱)하지 않고는 '새로운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뇌하지 않고는 '남이 안 하는 그 무엇'에 감히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뇌한다는 것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는 것이다. 고뇌(苦悶)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무언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논리(論理)를 세우고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공론(公論)에 부쳐 '주관(主觀)의 객관화(客觀化) 작업'을 하고 이렇듯 해서 무언가 하나를 성취(成취)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창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쪽이는 '아리'가 아니다. 반쪽이는 '아리'가 아니라 '아리'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축적(蓄積)된 데이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축적된 지식체계(知識體系)' 속

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지식체계를 쌓아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데이터가 많이 쌓아야 하는 이유이다. 교육열(教育熱) 못지 않게 학구열(學究熱)에 보다 더 불타야 하는 이유이다.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부에 몰입(沒入)하는 상을 삼켜줘야 한다.

창작(創作)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술(藝術)은 이렇게 해서 탄생(誕生)하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예술은 길고 인생(人生)은 짧다'고 말한다. 사랑은 가도 그가 남긴 작품(作品)은 남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이 '고뇌(苦惱)의 산물(產物)'이기 때문이다. '고뇌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이고 '창작'이기 때문에 돈보이는 것이고 기리 빛나는 것이다.



이규임

전북영산재학원원장

우리는 흔히 '발상(發想)의 전환(轉換)'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한다. 또 패러다임(paradigm)을